

# 해경, '구조 거점 파출소' 운영

앞으로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에는 잠수능력을 갖춘 구조요원과 잠수 장비를 배치한 '구조 거점 파출소'가 운영된다. 또 소형 경비함정에도 전문 잠수요원이 배치된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영종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상 구조 역량 강화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현재 대형 함정에만 배치한 구조요원 및 잠수장비를 소형 경비함정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신인 경찰 교육 시 지원자 선발에 잠수전문교육을 실시해 현장에 배치하고, 구조 안전 중심의 파출소 명칭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또 현재 부산과 목포 등에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오는 2019년까지 인천과 제주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해경은 해상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인천 영종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매주 주야간 1회씩 구조대별 예방순찰을 병행한 지형숙달 훈련과 비상 출동훈련을 실시한다. 또 구조보트가 신고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계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낚시어선 운항에 필요한 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를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야간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낚시어선 정원 산정 기준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비·시설도 확충한다. 내년까지만 해도 항적을 활용한 연안해역 해상 교통지도 정보를 구조보트에 제공하고, 구조보트 운항에 필요한 주요 부품(선외기 엔진·레이더 등)이 고장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현재 도입 중인 신형 연안구조정(56척)의 조기 납품 및 갯벌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양식장 등 장애물 영향에도 운항이 가능한 기술(위터제트 이물질 제거기) 개발을 추진기로 했다.

박경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청장으로서는 이번 사고대응과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듯한 충고와 질책을 달게 받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고를 통해 제기된 상황관리와 초기대응의

## 사고 빈번 파출소·소경비정 잠수요원 배치 인천·제주에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설치 매주주·야간 1회씩 지형 숙달 훈련 실시

문제점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12월 11일부터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조사평가단'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어 "신고접수 과정에서의 혼선 및 대응 미숙, 파출소와 구조대의 출동 지연, 구조보트 등 장비의 유지관리 미흡 등 여러 문

뉴스스



겨울은 메주의 계절 19일 오후 경기 안성 일죽면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서일농원에서 차분하게 맛을 품어가고 있는 메주를 직원들이 짚으로 매듭짓고 있다.

## 몰카 성범죄 작년 5185건...삭제 요구 거부시 과태료

별도 규제가 없었던 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차용행(여러블) 기기 등에 자신도 모르게 찍힌 영상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몰카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까지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185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 대상은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 고정형에 국한한 탓에 관련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정안은 고정형과 이동형을 불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해당 영상 촬영자와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

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과 민간 모두 개인영상정보를 몰래 촬영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 보관 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도 의무화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처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검찰, 세월호특조위 방해 해수부 공무원 수사 착수

검찰이 세월호특조위(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해수부(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9일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

해(직급 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해수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배당했다 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검

찰청에 관련 수사의뢰서가 접수됐다"며 "대검찰청은 접수 당일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수사 의뢰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 美시애틀서 암트랙 탈선 3명 사망

18일(현지시간) 오전 7시40분께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남쪽 듀폰에서 암트랙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CNN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난 암트랙 501 열차는 처음으로 워싱턴 주 시애틀과 오리건 주 포틀랜드를 잇는 새로운 노선을 운행 중이었다.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로 출발한지 1시간 40분 만에 사고가 난 셈이다.

NBC뉴스는 사고 열차가 시속 48km 구간에서 시속 128km 속도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열차에는 80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추락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5대의 승용차, 2대의 트럭과 충돌했다.

에드 트로이어 피어스카운티 대변인은 "사망자는 모두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망자가 승객인지 승무원인지는 분명치 않다. 워싱턴 주 대변인에 따르면 부상자 중 7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10명은 위중한 상태다.

암트랙은 성명을 통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사할 것이고, 당국에 충실히 협조하겠다. 현재로서는 원인에 대해 추측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 "우리가 곧 제출해야 할 인프라 계획이 신속하게 승인돼야 하는 이유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보여준다"고 트위터했다. 하지만 AP통신은 "이번 사고는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선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완성된 선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연금개혁에 화난 아르헨 국민 경찰과 충돌

의회의 연금 개혁 논의에 화난 아르헨타 국민들이 18일(현지시간) 의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 집압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아르헨타 노조 지도자들은 연금 지급액을 크게 삭감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 논의에 맞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연금 개혁안은 그러나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다. 시위대는 이날 경찰에 병과 물,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도 최루가스나 고무탄, 물대포로 강경하게 맞섰다. 아르헨타 당국은 시위대 48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과 은퇴자, 기자 등을 포함한 149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70살의 은퇴자 크리스티나 산베로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나이에 30년 간 부은 연금을 지키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 아르헨타 지도자들은 노인들로부터 빼앗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다"라고 말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정부는 막대한 정부 채무 감축을 위해 일련의 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연금 개혁도 그중 하나이다. 노조 지도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그러나 연금 개혁이 연금과 퇴직수당을 크게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줄이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르헨타 노조들은 연금 개혁 추진에 항의해 18일 정오(한국시간 19일 지정)부터 24시간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는 이로 인해 수백편의 항공편이 말이 묶였다.

## 베네수엘라 수도서 5시간 정전사태

베네수엘라의 전력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시설에서 18일(현지시간) 고장이 발생, 수도 카라카스 일부와 인접한 2개주에서 다섯 시간 동안 정전사태가 발생했다고 관리들이 발표했다.

한 낮에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면서 카라카스 시내의 지하철 시스템과 국제 공항이 마비 되었다고 국영 TV 방송과 국내 신문들이 보도했다.

수도 카라카스 시내에서는 정전으로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의 보도마다 지하철이 끊기면서 지상으로 쏟아져 나온 군중으로 붐볐다.

일부는 초만원 시내 버스의 틈을 비집고 올라타기도 했다. 이발사인 헤리슨 밀란은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 카라카스 시내가 지금은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말했다.

정전 사태는 인접한 미란다와 바르가스 주에도 타격을 입혀 일부 지역의 이동통신사도 일시적으로 통신이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

12시에 일어난 정전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모타 도밍게스 전력에너지 장관은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아직 공식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전력회사 주식 6억5000만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은 지난 11월 부도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